



뉴스레터

2025년 11/12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35호(11/12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진 연구활동	07
3. 한반도 정세분석	12
4. IFES 브리프 / 포럼	13
5. IFES AI 아카데미	16
6. IFES 해외방문학자 Fellowship Program	19
7.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21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8
2. 언론 속의 IFES	31
3. IFES 도서관	34
4. 예정사항	36
5. 안내사항	37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한반도 정세분석

IFES 브리프 / 포럼

IFES AI 아카데미

IFES 해외방문학자 Fellowship Program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KDCI-IFES Young Professionals Seminar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23일(목) 오후 2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리즈 2: “미래세대를 위한 한반도 통일담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2개 소주제 발표(발표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발표2: 박소혜 북한대학원대 연구교수)와 5명의 지정토론(박세암 강남대 특임교수, 선슬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김미정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준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윤세라 동국대 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주제: ‘미래세대의 환경 변화와 통일 담론의 재설계’)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는 글로벌 변화의 거센 파도 속에 있다”면서 “AI기술의 번개 같은 혁신, 디지털화와 개인주의의 끝없는 물결,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북한의 두 국가론이 불러온 차가운 분단의 벽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미래세대는 통일 담론을 재창조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주제: 미래세대 통일 의식 형성을 위한 방향: AI 시대의 통일교육 전략)에서 박소혜 북한대학원대 연구교수는 “AI가 정답을 대신 찾아주는 시대에는 통일담론 역시 ‘정답 중심의 교육’에서 ‘질문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일교육이 더 이상 ‘지식을 암기하는 교과’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고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나.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연구진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연구진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왕휘(Wang Hui)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왕용핑(WANG Yongping) 사회과학전선 편집부장, 마니(MA Ni) 연구처장, 리쉐(LI Xue) 대외협력처장, 쉰룽지에(Quan Longjie) 사회학연구소 부연구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 이형중 기획홍보실장, 오현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학술세미나 정례개최 ▲공동 학술프로젝트 수행과 연구서 발간 ▲양 기관의 학술지 논문 등재 교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연구진들은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예방하고 북한대학원대 총장 및 심연북한연구소장 등 교수들과 학술교류 등을 논의한 후 도서관 북한자료실을 견학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의 구체적 실천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 현대 아시아 연구소 연구진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1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 현대 아시아 연구소 연구진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바바예프(Babaev K.V.) 원장, 삼소노바(Samsonova V.G.) 한국학센터 소장, 제빈(Zhebin A.Z.)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 김은언(Kim En Un)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 오세트로바(Osetrova M.E.) 한국학센터 연구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 임을출 연구실장, 최영준 국제협력실장, 오현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한·러 교류 활성화를 약속하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에 뜻을 함께했다. ▲ 2026년 공동 라운드테이블 개최 ▲ 연구자료 교환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남북관계 전망 및 통일전략 구상”에 대한 논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진들은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예방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도서관 북한자료실을 견학하였다.



라.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초청 설명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1월 26일(수)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을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및 연구소 주요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일규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에서 소위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평화적 남북관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 변화가 남북관계에 주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규 총장은 이일규 책임연구위원이 앞으로도 극동문제연구소와 교류를 이어 나가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2.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제52회 한반도 미래비전과 동북아 평화구축 전문가 정책포럼 지정토론
 - 일자/장소: 2025. 10. 18.(토) /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세미나실
 - 내용: 이재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 2) 2025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18회 추계 학술세미나 발표
 -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 주제: 안보·국익 기반 남북경제협력 전략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중국 천진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5. 10. 20.(월) / 중국 천진 르네상스호텔
 - 내용: 중국이 Global governance initiative에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하고, 힘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지켜야 함을 강조
- 2) 중국 천진 난카이대학 특강
 - 일자/장소: 2025. 10. 21.(화) / 난카이대 주은래 학교 강당
 - 내용: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이해 확산

김광운 초빙석좌교수

- 1) 여수시·광주과학원 공동 주최 여순사건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 일자/장소: 2025. 10. 29.(수) / 여수 신라스테이호텔
 - 내용: 조선노동당의 여수·순천 10·19사건 이해
- 2)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최 두만강국제학술회의 토론
 - 일자/장소: 2025. 11. 1.(토) / 연변대학교
 - 내용: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등

2. 교수진 연구활동

김상범 교수

- 1) 세종연구소 주최, 2025년 하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구상 및 평가(토론 발표)
 - 일자/장소: 2025. 11. 4.(화) / 세종연구소
 - 내용: 북한의 경제, 대외 외교 정책 분석 및 평가
- 2)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교양학부 주최,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왜 필요한가” 특강
 - 일자/장소: 2025. 11. 11.(화) /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 3)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세미나, “북의 우리국가제일주의담론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미친 영향” 발표
 - 일자/장소: 2025. 11. 12.(수)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내용: 북한체제의 특성, 적대적 두 국가론 등장 배경 등

임형신 초빙교수

- 1) 인천시민사회연대 주최 한강하구 평화정착 토론회 토론
 - 일자/장소: 2025. 10. 29.(수)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 내용: 한강하구 평화정착 및 평화의 배 활동 방향

선슬기 초빙연구위원

- 1) 한국수출입은행 논문 등재(수은북한경제 2025 가을호)
 - 일자: 2025. 9. 30.(화)
 - 제목: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수준의 평가’ 즉, 시장화율 추정과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향후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점 연구과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의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화 수준평가 즉 ‘시장화율’을 객관적으로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과 그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시장화율을 추정하였다.

둘째,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북한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추정된 시장화율을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성장함수로 설정하여 그 성장 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화의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 북한 경제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로 한 국민의 무관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통일방안 재정립 프로젝트가 다시 활성화되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JTBC 뉴스 인터뷰

- 한·중 정상회담 당일 ‘특수부대 시찰’...김정은, 북·러 밀착 행보 (2025. 11. 2. 일)

2) YTN 뉴스 인터뷰

- ‘러브콜’ 거부한 북...협상 주도할 때까지 침묵? (2025. 11. 2. 일)

- ‘북, 미 제재에 “악의적 본성 또...상응하게 상대할 것” (2025. 11. 6. 목)

3)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 북한, 미국 제재에 “악의적 본성” 발끈...비난 수위는 조절? (2025. 11. 6. 목)

4) KBS 9시 뉴스 인터뷰

-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미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 (2025. 11. 7. 금)

2. 교수진 연구활동

조진구 교수

- 1) 한겨레신문 인터뷰
 - 이 대통령, 30일 이시바와 세 번째 만남...“일 차기 총리에 보내는 신호” (2025. 9. 30. 화)
- 2) 뉴스1 인터뷰
 - APEC 2주 앞인데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일정 아직...日 변수에 주목 (2025. 10. 15. 수)
 - 李-다카이치 첫 출발은 좋은데...한일 軍 '급유 거부' 여파에 빠격 (2025. 11. 8. 토)

이병철 교수

- 1) 중앙일보 인터뷰
 - 한·미·중-APEC 정상회의 '3대 담판' 경주 뜨겁게 달군다. (2025. 10. 23. 목)
 - 번번이 좌절됐던 핵잠 '30년의 꿈'...별도 협정 등 관문 남아 (2025. 10. 31. 금)
- 2) 뉴스핌 인터뷰
 - “K-핵잠” 이미 30% 진행...미국서 만들면 Made in USA” (2025. 11. 6. 목)

김상범 교수

- 1) 경향신문 인터뷰
 - 시진핑, 김정은에 “국제적 정의 공동 수호” 연대 과시 (2025. 10. 12. 일)
- 2)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
 - “Hostile to the end: North Korea’s shock at US subs approval sinks talk hopes” (2025. 11. 19. 수)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중앙일보 대담 출연
 - [한중비전포럼] “여야가 힘 합쳐 미국과 잘 지내야 우리 경제도 잘돼” (2025. 10. 16. 목)

2) BBC 인터뷰

- APEC 중점 과제와 한미, 한중, 한일, 미중 정상회의를 주제로 대담 (2025. 10. 30. 목)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MBN 뉴스 인터뷰

- “트럼프-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건” (2025. 10. 5. 일)

2) YTN 출연 / 인터뷰

- APEC 본회의 개막...‘간부’로 뭉친 ‘부자보이즈’ (2025. 10. 30. 목)
-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미중, 세기의 담판 쟁점은? (2025. 10. 30. 목)

3) 연합뉴스 출연

- 미·중 ‘세기의 담판’...무역긴장 완화 조치 합의 (2025. 10. 30. 목)
- 한중 첫 정상회담...APEC ‘경주 선언’ 피날레 (2025. 10. 31. 금)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칼럼기고

- 스테이블코인 주요국 법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25. 10. 24. 금)
-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1024140940323>

이상만 초빙교수

1) 중국망 신문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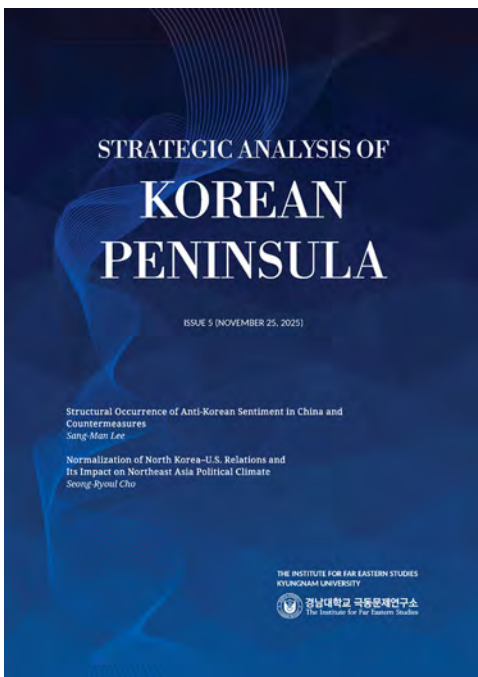
- 중국 ‘14·5’ 기간의 성과와 ‘15·5’ 기간의 전망—‘양적 고속성장’으로부터 ‘질적 발전 시대’를 향해 (2025. 10. 13. 월)
- * (기고문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5-10/13/content_118120450.html

3. 한반도 정세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025년 10월부터 북핵 문제,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미, 한·중, 북·중, 남북관계 등의 복합적 국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반도 상황의 정확한 분석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분석·평가 플랫폼인 『한반도 정세분석』(영문·중문) 발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평가 결과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연구기관·학자·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 현안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소는 약 4년간의 Fellow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해외학술교류를 통한 해외전문가들에게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 변화 등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평가·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편의 보고서(영·중문)를 발행하여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외국학자와 전문기관에 배포하였다.

연구소는 2026년에도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분석』 발간을 지속하여, 국제적 소통 및 연구 교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발행해 오던 IFES 브리프(국문)와 IFES Forum(영문)도 연구소 교수진, 석좌·초빙교수, 초빙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속 발간·제공할 예정이다.



4.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4건)

IFES 브리프(요약)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 노동당 창건 행사 참여의 의미

2025. 10. 23.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북한 노동당 창건일 기념행사에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것을 동남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베트남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번 토람 서기장의 방북은 18년 만에 이뤄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북으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또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 유치 가능성을 바라본 측면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국가로 이번 외교장관의 방문은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남북 사이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함께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외교의 위상을 세우려는 의도였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과 한일 관계

2025. 10. 24.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연구센터장)

2025년 10월 2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되어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26년간 연립정권을 함께했던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했으나 소수 여당이라는 점에 더해 일본유신회가 각료를 보내지 않는 '각외 협력'에 그치고 있어 안정감이 떨어진다.

4. IFES 브리프 및 포럼

보수 색채가 강한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은 자민당을 보다 보수적인 우파 정당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표명해 왔던 만큼 새 정권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을 펴나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중국 제20기 4중전회 분석과 전망

2025. 10. 27.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25년 10월 열린 제20기 4중전회는 시진핑 체제의 향후 권력구조와 통치 지속성을 가늠할 분수령이었다. 회의는 '신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과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를 강조하며 제15차 5개년계획의 방향을 제도화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권력 집중의 한계와 군 통제력 약화라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4중전회에서 확인한 '두 개의 확립(两个确立)'과 '두 개의 유지(两个维护)'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으나, 군부 통제 약화와 경제·외교 불확실성 등은 장기집권 구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내년 3월 예정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양회)에서 제시될 제15차 5개년계획 비전, 국무원 및 중앙기관 인사제청, 경제안보 및 군 개혁 관련 결정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한미원자력협력 협정과 농축, 그리고 원자력잠수함

2025. 10. 30.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10.29)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공급을 허용해 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하겠다"고 했다.

우라늄 광산과 농축시설이 없는 우리로서는 원자력잠수함용 핵물질 및 농축을 외국에 의존해야하므로 단순히 IAEA 안전조치협정이나 양국 간 원자력협정의 문제를 떠나 핵비확산이나 수출통제의 관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필요하면 기존 원자력협정을 벗어나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별도의 협정이 한미 간 필요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협조뿐만 아니라 IAEA 안전조치와 정합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외교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주변국 반응 관리와 국내 사회적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2건)

IFES 포럼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Resuming U.S.-DPRK Summits: Assessing the Likelihood of Renewed Dialogue

2025. 11. 11. Tae-Hwan Kwak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hairman, Institute for Korea Peninsula Future Strategies)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

Evaluation of the China-South Korea Summit and Outlook for Bilateral Relations

2025. 11. 14. Linjie Niu (Director, Trilateral Cooperation Studies Center of Shandong University)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5. IFES AI 아카데미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AI 기술이 국제관계, 특히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9월 AI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10~11월기간 중 총 6차례 강의 및 1차례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가. 전체 강의 진행

- 제1강) ○ 주제: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사회의 미래
 - 강사: 류현정 조선비즈 콘텐츠 전략팀장
 - 일시/장소: 2025. 9. 11.(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2강) ○ 주제: AI 시대 윤리적 딜레마와 철학적 성찰
 - 강사: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 일시/장소: 2025. 9. 18.(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3강) ○ 주제: AI 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미래 산업
 - 강사: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 일시/장소: 2025. 9. 25.(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4강) ○ 주제: 미중관계와 중국 AI 혁신전략과 한중관계
 - 강사: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시/장소: 2025. 10. 16.(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5강) ○ 주제: AI 시대 전쟁과 안보
 - 강사: 설인호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 일시/장소: 2025. 10. 23.(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6강) ○ 주제: 북한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 현황
 - 강사: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 일시/장소: 2025. 10. 30.(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7강) ○ 주제: AI 시대 남북관계 연구 분석의 새로운 도전
○ 강사: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일시/장소: 2025. 11. 6.(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8강) ○ 주제: AI 기반 남북협력과 기술 평화 구상
○ 강사: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시/장소: 2025. 11. 13.(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제9강) ○ 주제: AI 시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전략
○ 강사: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일시/장소: 2025. 11. 20.(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나. 현장 학습

AI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AI 아카데미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11월 27일(목)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와 네이버의 연구·인프라 전략에 대한 강의와 견학을 통해 AI 현주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 로봇-AI 융합, 데이터센터 운영 전략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AI 전략에 대한 설명과 AI가 기술에 접목되는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실제 업무와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AI기술 발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5. IFES AI 아카데미

다. 수료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관세)는 11월 20일(목)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IFES AI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9강의 오프라인 강의와 네이버 본사 방문으로 구성된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운영되었다. “AI 시대의 한반도 미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사회의 미래 △AI 시대 윤리적 딜레마와 철학적 성찰 △AI 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미래 산업 △미중관계와 중국 AI 혁신전략과 한중관계 △AI 시대 전쟁과 안보 △북한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 현황 등 다층적인 주제가 다뤄졌다.

수강생들은 “AI의 기술적·산업적 변화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의 외에도 다양한 참고자료가 제공되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AI를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관세 소장은 수료식에서 “AI 아카데미가 수강생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문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북·한·반도·동북아 이슈를 아우르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향후에도 AI와 정보기술, 국제정치, 안보, 남북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 수료식 〉

6. IFES 해외방문학자 Fellowship Program

가.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20일 (월) 오전 10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학자 4인을 대상으로 IFES 해외방문학자 Fellowship Program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동 OT에는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4명(왕위안: Wang Yuan, 류월교: Liu Yueqiao, 갈리문: Ge Liwen, 왕해룡: Wang Hai Long)과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을출 연구실장, 이형중 기획홍보실장, 최영준 국제협력실장, 모영환 행정관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관세 소장은 연구자들에게 “동북아 국제정세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국책연구기관 방문 지원 등)할 계획”이라며 “짧은 기간동안 연구에 큰 성과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방문학자들은 ▲IFES-UNKS 홍보영상 및 도서관 PPT(중문) 시청 ▲도서관·연구실 이용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연구소 주요시설을 견학하였다.

이번 방문학자 프로그램은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간의 MOU체결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6. IFES 해외방문학자 Fellowship Program

나. 유관기관 방문

연구소는 11월 3일(월) IFES 해외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방문 중인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연구원 등 유관기관 방문을 추진했다.

방문학자들은 통일연구원에서 최근 한반도정세 및 한·중 관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연구원 자료실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견학했다.

다. 펠로우십 프로그램 종료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1월 14일(금) 오전 11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진들의 IFES 해외방문학자 Fellowship Program 종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문학자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학술·연구 경험을 하였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극동문제연구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관세 소장은 “2026년에는 공동학술회의 개최, 공동 연구서 발간 등 극동문제연구소와 길림성 사회과학원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국경절 76주년 축전 “조중친선 끊임없이 심화발전… 당·정의 확고부동한 립장”, “전략적 의사소통·협조 긴밀히…세계평화·안정 수호 공동 노력할 용의”(10.1.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 “국방기술 새로운 목표, 다음 단계에 변천 양상 모두가 곧 알게 될 것”(10.5.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생일 축하 축전 “앞으로도 러시아 국가주권·영토완정·안전이익 전적으로 지지,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약 이행에 충실”(10.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당창건사적관’ 참관 연설 “10년 안에 모든 분야·부문·지역 새롭게 변천”, “당의 영도적 권위 훼손 요소·행위 색출·제거”, “제2의 건국, 모든 것이 간부들에게 달려”, “일꾼들 속 무지무능·무책임·보신주의·형식주의·요령주의 등 일체 폐단 일소”(10.8.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 “친선협조 관계 가일층 강화발전”(10.1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10.10.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 김정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 연설 “인민 위해 열심히 분투, 사회주의 낙원 일떠 세울 것”(10.1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푸틴-최설희 만나 “조로관계 강화 관련 훌륭한 담화 진행”…푸틴 “러북 관계는 계획대로 발전 중”, 북·러 외무상 회담 공보문 공개(10.28.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10.28. 타스통신)
- 김정은, 완공단계 강동군병원 방문해 병원준공 관련 과업 지시…보건분야 현대화계획 사업중요 목표(매년 20개 시·군 병원 건설) 강조(10.31.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11군단 지휘부 방문 “특수작전 역량 강화 위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사조직기구적 대책 본격 검토할 것”(11.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망, 김정은 및 당·정 간부들 조의 방문(11.4.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미국 대북제재에 반발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립장을 분명히 한다”(11.6. 조선중앙통신)

7.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북한-라오스 외무상 회담, “10월 수뇌 합의 철저 이행…조선-라오스 전통적 친선관계 강화, 국제무대 호상 지지·협력 문제 의견 교환 및 견해 일치”(11.1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최선희 외무상, G7 북한 비핵화 성명에 반발 “누구도 우리에게 위협 강요할 권리 없다…100년 열창해도 핵보유는 변함없는 현실”(11.14.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사,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비난 논평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한국 핵잠수함보유, 핵 도미노 초래할 것”(11.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가안전보위기관’ 창립 80주년을 맞아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사법검찰기관 축하방문해 격려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건실한 방조자”(11.1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참석 “다른 도들에 비해 인구도 적고 공업토대도 약한 강원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한 것 정말 대단”(11.21.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서 ‘시형성 및 발전법’ 채택, “도시 면모와 환경 현대적 개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 마련”(11.24.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미국 / 일본

< 미국 관련 동향 >

- 백악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 (10.1. 뉴시스; 10.2. 조선일보)
-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 계기 북미 대화 개최 여부 비공개 논의(10.18. 동아일보; 10.19. 해럴드경제)
- 트럼프 방한 앞두고 조셉 윤 대사대리 교체(10.19. 중앙일보; 10.20. 조선일보; 10.20. 서울신문 등)
- 부산 트럼프-시진핑 회담서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추가관세 보류 최종 합의할 듯, 아세안 미·중 고위급 회담서 최종 의제 조율 마쳐(10.27. KBS; 10.27. 연합뉴스)
- 트럼프-다카이치 “새로운 마·일 동맹 황금시대” 선언, 안보·경제 밀착(10.28. NHK; 10.28. 연합뉴스; 10.28. 한국일보)

-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 행정명령 서명…11.10.부터 시행(11.4. 백악관; 11.5. 연합뉴스; 11.5. 뉴스1)
-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는 빠져(11.14. 연합뉴스; 11.14. 한겨레)
- 미국·우크라이나, 스위스 제네바서 러·우 전쟁 ‘트럼프 종전안’ 담판…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가능한 빨리 합의 기대”(11.24. SBS)

< 일본 관련 동향 >

- 일본 자민당 총재에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 한일 관계 파장 촉각(10.4. 연합뉴스)
- 일본 자민당·공명당 26년 연립정권 중단으로 총리 지명 혼전 양상, 일본 정치권 내에선 “한일·한중 관계 냉각 우려”(10.12. 중앙일보)
-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희망”(10.21. 연합뉴스; 10.21. KBS)
-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 철회 안 해”(11.10. 연합뉴스)
- 일본 방위상 “일본 핵잠 도입 논의 당연…한국·호주도 보유”(11.12. 연합뉴스; 11.12. YTN)
- 일본 언론 “자민·유신, 살상무기 수출 제한 철폐 연내 협의”(11.12. 아사히신문(영문판); 11.12. KBS; 11.12. 연합뉴스)
- 다카이치 일본 총리, “북한과 정상회담 방법 찾는 중”(11.13. 연합뉴스)

중국 / 러시아

< 중국 관련 동향 >

-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축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 훌륭히 수호·공고·발전, 중국 당·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실무협조 심화”(10.1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10.10.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7. 북한·국제 정세 동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의 중국 국경절 76주년 축전에 답전 “전통적 중조친선 계승, 국제·지역문제 전략적 협조 강화…국제적인 공평·정의 공동 수호 용의”(10.1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중국과학원, 세계 최초 토륨-우라늄 핵연료 전환 성공(11.1. 신화통신; 11.3. 중앙일보)
- 중국 ‘3개 항모 시대’ 개막, 전자기식 캐터펄트 갖춘 세계 두 번째 항모. “푸젠함, 공해 정기적 출격할 것”(11.7. 환구시보(영문판); 11.7. KBS; 11.7. 연합뉴스)
- 일본 ‘대만 개입’ 시사에 중국 경계감 고조, ‘한일령(限日令)’ 압박(11.16. 한겨레; 11.17. 연합뉴스; 11.17. 뉴스1)
- 중국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이 품질·안전 보장 기술적 자료 제공 안 해… 다카이치 총리 대만 문제 등 주요 원칙 왜곡 발언에 중국 국민 분노”, “발언 철회 안 하면 중국은 추가 조치 취해야 할 것”(11.19.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11.19. 중앙일보)
- 중국 정부 “대만 관련 다카이치 일본 총리 잘못된 발언에 중국 국민 공분, 중·일 관계 정치적 기반 훼손”, 다카이치 “호혜적 양국 관계 방향성 변함없어”(11.21.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11.21. 뉴스1)

< 러시아 관련 동향 >

- 러시아 통합러시아당-북한 노동당 공동성명, 통합러시아당 “북한 국방력강화 조치지지”, 사실상 북핵 용인(10.1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10.9. 연합뉴스)
- 러시아 군사정치총국대표단 11.5.~11.7. 방북, “군사정치 기관 간 협력·발전 논의”(11.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11.9. 연합뉴스)
- 북한 공보위원회-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 간 ‘공보분야 협조 합의서’, 모스크바서 조인(11.1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러시아 최대 민간항공사 S7항공, 이달 12일부터 북한 영공 통과하는 정기편 운항…북·러 경협 확대 신호, 북한은 영공 통과료로 외화 확보할 듯(11.20. 연합뉴스; 11.19. NK News)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성과(10.29.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10.29. 뉴시스; 10.30. 중앙일보)
 - 이재명 대통령 ▲국방비 증대 및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협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 설명
 -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 필요에 공감,* 후속 협의 해나가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대화할 준비 돼 있음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 요청
 - 한·미 양국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10.29.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10.29. 연합뉴스)

대미 투자 규모	총 3천500억 달러: ▲2천억 달러 현금 투자(연간 한도 200억 달러 제한) ▲조선업 협력(MASGA) 1천500억 달러
수익 배분 구조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5대 5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 가능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문구 문건에 명시 등
관세	▲자동차 관세 25% → 15% ▲상호 관세 15% 유지(7월 말 합의)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 무관세

-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확정(11.14. 대통령실; 11.13.(현지시각) 백악관; 11.20. K-공감)
 - 경제 협력: ▲3500억 달러 한국의 대미 투자(조선협력 투자 1500억 달러)+투자(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상한)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 15% ▲자동차, 반도세, 의약품 등 관세 인하
 - 비관세 분야 협력: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미국산 농산물 검역협상 전담데스크 설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대우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원활화
 - 국방·안보 협력: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미군, 핵 포함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한국,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가 계획 ▲한국,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달러 구매 및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 포괄적 지원 제공
 - 조선·원자력 협력: ▲미국,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 조선 분야 원원 협력 기반 마련
 - 한반도·역내 협력: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합의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7. 북한·국제 정세 동향

한·일 정상회담 결과

- 한·일 정상,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공감대…셔틀외교 계속(10.30.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10.30. 연합뉴스)
 -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한·일 셔틀외교 추진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지방도시 방문을 기약

한·중 정상회담 결과

-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11.1.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 한·중 정상회담 주요내용 〉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 확보 및 민간 차관 우호적 신뢰 축적, 고위급 정례 소총 채널 가동
- 민생 분야 협력,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 등 체결
-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 소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 노력 지속 화답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 이동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5. 10. 1. ~ 2026. 9. 30. / 현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나.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시집 '안녕',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 시상식 (2025. 10. 28.)

202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전 경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시집 '안녕(So Long)'이 문두스 아티움 프레스(Mundus Artium Press)가 수여하는 '2025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Book of the Year)'으로 선정됨을 기념하는 시상식이 개최됐다.

문두스 아티움 프레스는 매년 세계 문학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현대 문학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올해는 김선향 이사장의 시집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한국 문학이 세계 문단과 교류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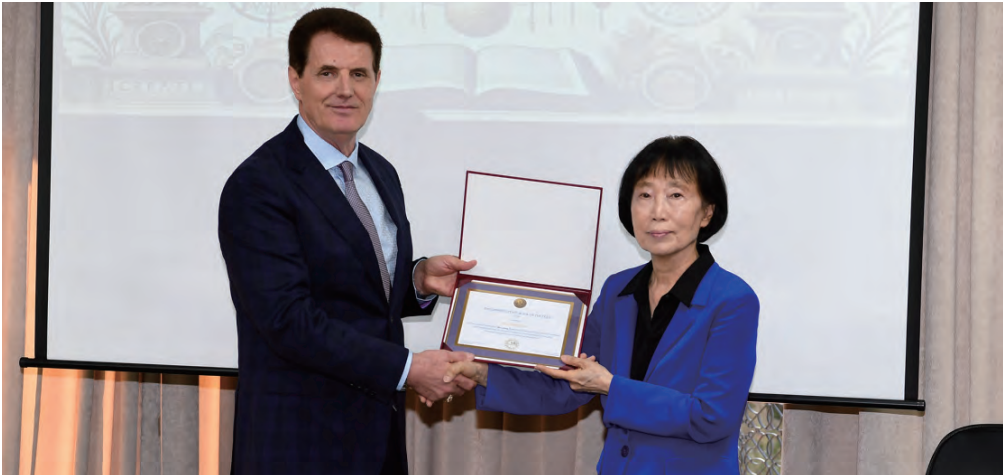
심사위원장인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는 '올해의 책' 선정 배경에 대해 "문두스 아티움 프레스를 통해 출판된 김선향 시인의 첫 시집 '안녕'의 초판이 몇 달 만에 완판 되고, 재출간 후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품의 중요성에 대해 "비유와 은유의 힘이 강해 예술성이 뛰어나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며, 작품의 구성과 표현이 명확해 다른 시와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과 관련해서는 "두 개 언어와 대륙을 연결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영어 독자들이 읽었을 때 번역본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평가했으며, 이후 "김선향 이사장은 정말로 뛰어난 시인", "기초 설계부터 언어적 예술까지 모든 면이 뛰어났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선향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말의 '안녕'은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이며, 'So Long'은 헤어질 때 친한 사이에 하는 말이어서 애뜻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네, 그 사랑스러움은 커져만 가고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네'라는 존 키츠의 시를 인용하면서 "안녕(So Long)이 나오기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등 주요 인사 약 70여 명이 참석해 시상을 축하했다.



〈 잭 마리나이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김선향 이사장 〉



〈 2025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시상식 〉

〈‘2025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 시상식’에 참여한 주요인사 ▲박재규 경남대 총장 ▲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잭 마리나이 문더스 아티움 이사 ▲송민순 전외교통상부장관 ▲안호영 전주미대사 ▲조병제 前국립외교원장 ▲최동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다.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경남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수여

“미국 시인이자 작가, 세계문학 학자, 번역가이자 문학비평가인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경남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를 받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은 10월 29일(수) 오전 11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에게 경남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는 마리나이 시인이 오랜 기간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가치를 전파하고, 한국과 국제 문학계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끌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잭 마리나이는 알바니아 출신의 미국 시인이자 작가, 세계문학학자, 번역가이자 문학비평가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문학 연구와 번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25권 이상의 시집, 문학비평서, 번역서를 출간했다. 또한, 독창적인 문학·예술 비평 방법론인 ‘프로토니즘 이론(Protonism Theory)’을 창시하고, 이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마리나이 시인은 답사에서 “오늘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경남대의 일원이 된 것은 영광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시와 정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며, 시는 목소리와 목소리가 없는 것의 모두를 반영하는 평화의 언어이다. 시는 자유, 용기, 평화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중한 다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구하는 경남대학교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수여식에는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최동호 시인(고려대 명예교수), 곽효환 시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총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 교수진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명예박사 수여를 축하했다.



2. 언론 속의 IFES

가. 박재규 경남대 총장, IAUP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서 공로상 수상 언론보도 (2025. 10. 14.)

아시아경제, CNB뉴스, 경남매일, 교수신문, 대학저널 등 13개 국내 언론사에서 박재규 경남대 총장 공로상 수상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박재규 경남대 총장, IAUP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서 공로상 수상”



(아시아경제 송종구 기자)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14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협회(IAUP)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로상은 박재규 총장이 IAUP 회원으로서 오랜 헌신과 탁월한 봉사로 협회의 성장과 글로벌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나.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시집 '안녕',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 시상식 언론보도 (2025. 10. 28.)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 22개 국내 언론사에서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시집(‘안녕 SO LONG’),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 시상식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시집, 문두스 아티움 프레스 ‘올해의 책’ 선정”



< 책 마리나이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김선향 이사장 >

(동아일보 최현정 기자)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전 경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 펴낸 자전적 영한 시집 ‘안녕(So Long)’에 대한 ‘2025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Book of the Year)’ 시상식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렸다. 이 상은 미국의 출판사인 Mundus Artium Press가 매년 세계 문학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현대 문학 작품에 수여한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다.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경남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수여 언론보도 (2025. 10. 29.)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CNB뉴스, 경남매일, 대학저널 등 23개 국내 언론사에서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경남대학교 명예문학박사 수여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경남대, ‘평화 전파’ 잭 마리나이 시인에 명예 문학박사 학위”



(연합뉴스 정중호 기자) 경남대학교는 박재규 총장이 잭 마리나이 시인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잭 마리나이 시인은 알바니아 출신의 미국 작가로, 번역과 문학비평 등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대는 그가 오랜 기간 인문학과 예술을 융합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가치를 전파하고, 한국 등 국제 문학계와 지속적 교류를 이끌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생 대상 도서관 설명회

연구소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홍보영상 (PPT) 시청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2만 여종의 북한원전 자료와 북한·통일관련 국내외 자료 및 연구 성과물, 국내저명 인사들의 기부자료, 연구소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을 안내했다.



○ 일시/장소: 2025. 11. 8.(토), 11:00~ / 도서관

○ 대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생 8명

나. 신착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0~11월 중 신착 도서 35권을 입수하였다.

〈 주요 신간 도서 목록 〉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안녕 So Long	김선향	Mundus Artium Press	2025
2	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for intelligence analysis Richards J. Heuer Jr	Pherson, Randolph H.	CQ press	2021
3	Critical thinking for strategic intelligence Randolph H. Pherson	Pherson, Katherine Hibbs	CQ press	2021
4	The logic of accidental nuclear war	Blair, Bruce G.	Brookings institution	1993
5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Yves Surel	Meny, Yves	Palgrave macmillan	2002
6	Strategy in the missile age	Brodie, Berna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7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2025
8	민주조선		로동신문사	2025
9	천리마		천리마사	2025
10	朝鮮新報(조선신보)		朝鮮新報社	2025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5
12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5
13	김일성종합대학학보:법률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5
1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5
15	역사과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25
16	사회과학원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5
17	조선녀성		근로단체출판사	2025
18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25
19	2022년도 안보정세전망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1
20	North Korea : another country	Cummings, Bruce	New Press	2004
21	Secrets : a memoir of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	Ellsberg, Daniel	Penguin Books	2002
22	Teach me how to whisper : "horses" and other poems	Marinaj, Gjekë	Syracuse university press	2023
23	War with new and old characteristics : lessons from the Russo-Ukrainian war and prospectsfor the U.S.-China confrontation	Kikuchi, Shigeo	NIDS	2025
24	康仁徳と對北朝鮮インテリジェンス：韓国知日派知識人のオールラルヒストリー	소침진	同時代社	2025
25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 한눈에 보기	현은희	국회도서관	2025
26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 : 지역창생 전략, 콘텐츠 산업에서 답을 찾다	증연민지	씨아이알	2023
27	미술로 하는 남북대화 . 1	신수경	학연문화사	2022
28	미술로 하는 남북대화 . 2	홍지석	학연문화사	2022
29	북한미술 문헌해제	이소현	바림스튜디오	2025
30	북한의 민족음악가	민경찬	국립국악원	2025
31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김수암	통일연구원	2025
32	진정한 노동자 해방의 길	편집부	힘	1989
33	파국의 지도 : 한국이라는 영화적 사태	김소영	현실문화	2014
34	한류 세계인을 사로잡다 : K-콘텐츠의 성공전략	증연민지	씨아이알	2024
35	함께 바라보는 동과 서 : 인간혁명과 지구혁명	지전대작	연합뉴스	2025

4. 예정사항

가. 제76차 통일전략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6차 통일전략포럼

2025년 한반도 정세 평가 및 2026년 정세 전망

격동의 전환기,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2025년 12월 11일(목) 14:00~17: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평화관 1층)


13:00~14:00	등록 및 접수
사회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14:00~14:40	제1주제 남북관계 진단: 두 국가론과 한국 통일담론의 재구성 발표 이가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4:40~15:20	제2주제 미·중 전략경쟁의 재편과 공급망 지각변동 발표 박한진(한국외대 객원특임교수) 토론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5:20~16:00	제3주제 북·중 관계 복원과 북·중·러 밀착 발표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 토론 이상숙(국립외교원 교수)
16:00~16:40	제4주제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한반도 핵문제 발표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정재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6:4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참가신청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까지
QR코드로 온라인 신청

* 문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지원팀
bee49@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중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https://ifes.kyungnam.ac.kr>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50,000원/일반회원: 70,000원/기관회원: 13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북한자료 열람 가능)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